붕괴 광산 맨손으로 파헤쳐 광부 구출

무너진 금광에 매몰됐던 광부 9명이 무사히 구조된 사연이 화제이다.

▲ 한 남성이 쏟아져 내리는 흙과 돌을 피해 가며 맨손으로 흙을 파헤쳐 매몰된 광부들을 구하고 있다. 사진=twitter(Maera)

지난달 25일 민주콩고 남키부주에 있는 광산이 갑자기 무너져 광부 9명이 매몰됐다.

트위터 등에 공개된 구조 영상을 보면 광산 외부에 있던 사람들이 매몰된 가파른 언덕의 광산 입구를 삽으로 파다 작업이 더뎌지자 삽을 집어던지고 맨손으로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후 조그만 구멍이 뚫리고 광부 한 명이 탈출에 성공했다.

첫 광부가 탈출한 뒤에도 언덕에서 흙과 돌이 계속 쏟아져 내려 입구를 다시 메웠고 또 다시 맨손으로 구멍을 파내야 했다. 그리고 광부들이 잇따라 탈출하기 시작했다.

주변에서 마음을 졸이며 지켜보던 사람들은 광부들이 한 명, 두 명 탈출에 성공할 때마다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질렀다. 2분 남짓한 시간에 광부 9명이 모두 탈출했고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콩고에서는 광산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장비나 안전 조처 등이 미흡해 갱도가 붕괴하면서 광부들이 매몰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이런 상황 때문에 이번 매몰사고 때도 광부가 구조될 가능성이 크지 않았지만 구조대가 광산 입구가 완전히 매몰되기 전에 신속히 대처한 덕분에 광부들이 모두 구조될 수 있었다.

번지점프 줄이 '뚝', 기적 생존

태국에서 번지점프를 하던 관광객의 발목에 감겨 있던 밧줄이 끊어지면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남성은 목숨을 건졌다.

▲ 번지점프를 하던 관광객이 밧줄이 끊어지며 추락하고 있다. 사진=sakshi.com

지난달 23일 CNN등은 지난 1월 태국 파타야에서 발생한 홍콩 관광객의 번지점프 추락 사고 당시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남성은 10층 높이의 번지점프대에서 몸을 던졌다. 그런데 이 남성이 거의 지상에 내려왔을 때쯤 번지점프 줄이 끊기더니 남성은 그대로 물에 빠졌다. 다행히 맨바닥이 아니었고 물에 닿기 직전에 줄이 끊어져 남성은 큰 부상 없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 남성은 발목이 번지점프 줄에 묶인 채 스스로 수영해 물 밖으로 나왔다.

남성은 "정말 높아서 눈을 질끈 감고 있었는데 눈을 다시 떴을 때 줄이 끊어져 물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고 회상했다.

CNN에 따르면 이 남성은 수면에 충돌할 때의 충격으로 몸에 다발성 부상을 입었고 업체는 번지점프 비용과 엑스레이와 초음파 검사 등 진료비를 지불했다. 하지만 남성은 치료 비용에 약 6,370달러나 썼는데도 업체가 293달러만 보상해줬다며 제대로 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해당 업체 대표는 "만약 사고나 불상사가 발생하면 우리가 의료비를 모두 보상해준다." 며 "고객들은 다른 비용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 고 주장했다.

"'피자 싸대기'는 폭행 아니야"

▲ 피자.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shutterstock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플로리다주 거주 남성이 "피자로 가격했을 뿐, 손으로 때리지는 않았다." 라며 폭행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남성 오르텔리오 라자로 알폰소(39)는 지난달 17일 익명의 여성과 말다툼 하던 도중 피자로 여성의 뺨을 폭행해 체포됐다.

플로리다주 마리온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은 911을 통해 '가정 내 소요' 신고를 받은 보안관들이 현장으로 출동했으며, 현장에 있던 피해자 여성의 셔츠 전체와 머리카락, 귀 주변에서 명백한 피자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익명의 여성 피해자는 보안관들이 집 안을 수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안관 사무실이 공개한 진술서에 따르면, 엄청난 힘으로 휘둘러진 피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부엌 벽과 천장까지 튀어 가격의 강도가 얼마나 컸는지 짐작하게 했다.

알폰소는 현장에서 바로 체포됐고, 진술 과정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끝에 피자를 얼굴에 집어 던지게 됐다." 라고 증언했다. 알폰소는 폭행 혐의에 대해 '손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 피자를 던졌을 뿐' 이라며 자신의 행동은 폭행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체포된 알폰소는 이후 마리온 카운티 교도소에 폭행 혐의로 임시 수감됐으며, 혐의를 인정한 이후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